

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가지 현장을 향한 미션을 한 주씩 확인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. 이 세가지 빈 곳의 현장에 우리 각자가 받을 응답이 있고, 우리 교회가 누릴 축복이 있다.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.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“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”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이다.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축복을 놓치면 적어도 세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.

**첫째는 우리와 후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고도 영적인 포로, 노예, 속국의 삶을 살게 된다.** 왜 꼭 이렇게 될까? 대표적인 실례가 요나이다. 요나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전도하기 싫어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짓밟고 포로로 끌고 간 것이다. 세상이 갈수록 악하고 내 옆에 악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? 그 악한 세상을 떠나든지, 살려서 이웃이 되어 같이 살든지, 아니면 그 악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.

**둘째는 이 비밀을 놓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것이다.**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가 누린 축복이 무엇인가? 주인인 보디발을 축복받게 하고, 감옥의 죄수들에게도 답을 주고, 왕에게까지 답을 준 것이다. 왕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했다(창41:38). 이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였다.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복음으로 풀고, 전도와 선교로 풀어보라는 것이다.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.

**셋째는 이 비밀을 놓치면 성도가 누릴 최고의 축복인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.**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유가 뭔가?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던 절대적인 그 일, 모든 민족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셔야 하기 때문이다.

**1. 237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인가?**

- 1) 우리를 보내시고,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. 하늘의 권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이다. 우리의 죽고 살고,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이 그 분께 달려 있다. 땅의 권세는 감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권세이다.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.
- 2)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다.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축복이다.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통하지만 시간을 초월할 수는 없다. 영적인 것을 그 시간까지도 초월한다.
- 3) 이때 참된 예배,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된다(삼상7:10).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, 힘을 얻고, 기도하는데, 그 힘이 전달되는 것이다(자녀들에게, 직장에, 선교지에). 성령이 역사하시고, 필요할 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군과 천사를 움직여 역사하신다(시103:20-21).
- 4) 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 질 때 모든 민족, 237이란 의미가 이해되고, 가슴에 품어지는 것이다.
- 5) 이때 보좌, 세계, 나 또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. 내가 그 속에, 그 속에 나와 우리가 있는 것이다(원네스) 같은 세상에 살고, 같은 문제를 겪으나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. 그것을 영적 수준, 영적 씨앗이라고 한다

**2. 이 237 빈 곳과 “나”이다.**

-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는 자로 쓰시겠다는 것이다.
- 1) 모든 문제 속에서 절대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“오직”으로 누리라. 그때 유일성,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.
    - ① 문제가 문제 아니다(요19:30).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눈으로 보라.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.
    - ② 오직이 된다는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. 내게 오직이 되어주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.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느껴지고, 보여지는 것이다(깊은 사랑, 깊은 마음, 깊은 계획)
  - 2)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.
    - ① 집중의 중요한 것이 묵상이다. 묵상과 명상의 차이점이 뭐냐?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. 필요하다.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나중에는 영적 문제가 온다(마12:44-45). 명상은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이다.
    - ② 언약과 말씀을 채우고,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, 적용하는 것이다(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원리와 같다). 그래서 성경에 묵상의 축복을 강조했다(창24:63, 수1:8, 시1:1-3, 시19:14)
  - 3) 이 속에서 나의 전도, 나의 선교를 놓고 기도해보라.
    - ① 일단 237 모든 나라에 내가 있는 선교사들을 놓고 영적 파수꾼의 기도를 하라. 인터넷망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접속이 되어야 쓰는 것이다. 또 인터넷망 속에 플랫폼이 있고,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. 우리는 이제 그보다 더 강한 영적인 통신망에 기도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.
    - ② 그것을 지속하는 데, 안 가는 데도 내 옆에 그 237의 사람이 와 있을 수 있다(행2:9-11). 하나님이 집사 빌립처럼 성령으로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불혀 주신다(행8:26, 29, 39)

**3. 이 237의 빈 곳과 “우리 교회”다.**

-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할 때 세계복음화의 큰 문도 열리고, 큰 일도 감당하게 된다.
- 1) 우리 각자를 통해 교회가 힘을 얻게 만들어야 한다. 그래서 각 부서가 중요하다. 모든 중직자들이 중요하다. 광야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나누고, 70인 장로로 묶은 이유가 그것이다. 마치 몸의 지체와 같다고 했다. 누구 하나의 작은 일도 소중한 것이다(엡4:16).
  - 2) 교회가 참된 집중을 해야 한다. 우리 교회가 237 선교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라.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고, 필요로 하시고, 절대적인 일이 있다. 전도와 선교, 후대 살리는 일이다. 모이면 기도하고, 흩어지면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에 그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다. 1세대 부모가 뒤에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정이나 교회의 흐름이 되는 것이다.
  - 3) 특히 교회 안에 여러 전문인들은 힘을 모아서 전문인 선교를 해야 한다.
    - ① 의료 선교, 군 선교, 대학 선교는 시작이다. 이것이 지속되고, 다음 세대가 이어 받고, 여기서 웹먼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때까지 헌신하라.
    - ② 이 시대에 IT 선교팀, 미디어 선교팀, 문화 선교팀은 시대적인 사역이다. 굉장한 영향력을 줄 것이다. 우리 교회에 인재들이 숨어있다. 다락방 전체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있다.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깃발 들고, 24시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.

**결론-** 왜 “빈 곳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?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,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.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영적인 답을 주면 다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.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다.